

5·18 주제의식 예술적 가치로 승화

새로운 관점으로 5·18정신을 담아내고,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작품으로 뽑는다는 공모 취지에 맞게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 총 응모 편수는 동화 66편, 동시는 응모자 10명이 보낸 70편이었다.

동화에서는 전제적으로 5·18정신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킨 작품들이 많았다. 이야기 전개도 이제까지 주로 나왔던 과거 회상을 통한 접근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구성들이었다. 좀 더 새로운 시각의 스토리라인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심사를 하는 내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 전달을 위하여 노력한 응모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해부터 아동문학 부문에 동시도 함께 받았지만 처음이라 응모자는 많지 않았다. 동시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인이 아이의 감정과 정서로 쓴 시다. 따라서 창작자는 성인이지만 아이들 눈높이의 표현과 감정을 담아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시에 담아야 할 묘사나 함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서인지 대부분 공모 취지에 벗어나 주제를 제대로 형상화시키지 못한 작품들이 많았다. 일반 동시를 쓰는 일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문학 작품으로 피어낼 고민의 자리들이라 여겨진다.

고민 끝에 동화 「동재의 생일」, 「다시 피는 꽃」, 「북치는 아이」를 본심에 올렸다. 「동재의 생일」은 주제를 향한 접근방식이 새로운 동화였다. 그러나 갈등이 좀 더 치열했으면 하는 생각과 구성이

단조롭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 피는 꽃」은 인물들이 평면적이
라 작품에서 주는 흥미성과 재미가 다소 떨어졌으며, 문학적 세계관이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북치는 아이」는 주제를 담
아내기에 걸맞은 배경과 비유, 묘사 등이 다른 작품과 차별성이 있었
다. 특히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작품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충
분히 발휘하였다. 그래서 탄탄한 문학적 소양으로 5·18 주제의식 형
상화에 성공한 「북치는 아이」를 당선외의 자리에 올렸다.

모든 응모자들이 작품을 써내기 위해 고심하고 공들였을 시간들의
흔적들이 읽어가는 내내 보였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기 바란다.

2022년 4월 21일

2022 5·18문학상 신인상 아동문학 심사위원

이성자. 안오일